가수들 뮤지컬에 빠지다

바다·옥주현·앤디 등 진출 잇따라

요즘 안방극장에서 맹위를 떨치고 있는 연기자들 중에는 뮤지컬 배우 출신들이 많다. '거침 없이 하이킥'의 박해미, '포도밭 그 사나이' '왕과 나'의 오만석, '고맙습니다'의 신성록, '황금신부'의 송창의, '김치, 치즈, 스마일'의 엄기준 등.

뮤지컬 스타들이 TV로 외도를 하고 있는 사이 가수들이 뮤지컬 무대로 옮겨가고 있다. 예전부터 가수들의 뮤지컬 무대 진출은 있어 왔지만 최근에는 그 바람이 더욱 거세다.

특히 최근 들어 음반 시장이 심각한 불황에 빠지면서 가수들이 다양한 활로를 모색하고 있는데다 제작사 입장에서도 이미 인지도를 확보한 가수들을 기용할 경우 홍보면에서 그만큼 수월해 가수들의 뮤지컬 무대 진출은 더욱 활발해질 전망이다.

일부 가수들의 경우 '이름 값'에 맞는 무대를 보여주지 못하기도 했지만 연기력 면에서는 다소 아쉬워도 '지킬 앤 하이드' '웨스트 사이드 스토리' 등에 출연한 소냐처럼 뛰어난 가창력을 바탕으로 더블 캐스팅된 뮤지컬 전문배우들의 인기를 능가, 성공적인 변신을 한 경우도 많다.

지난해 '아이다'를 통해 한국뮤지컬 대상 신인상을 수상했던 옥주현은 오는 9월 '시카고'로 무대에 복귀한다.

르네 젤위거, 캐서린 제타 존스 주연의 영화로도 많이 알려진 뮤지컬 '시카고'에서 옥주현은 한국 최고의 뮤지컬 배우로 꼽히는 최정원, 배해선과 함께 호흡을 맞춘다.

뮤지컬 '사의 찬미' '페퍼민트' 등을 통해 뮤지컬팬들을 만났던 바다의 출연작은 '오페라의 유령' '캣츠'의 앤드루 로이드 웨버 작품인 '텔 미 온 어 선데이'.

한명의 배우가 극 전체를 이끌어 가는 모노 뮤지컬로, 실연의 상처를 잊기 위해 뉴욕으로 떠난 여주인공이 세 명의 남자를 만나고 이별하는 과정에서 느낀 감정들을 위트 있는 대사와 노래들로 표현한 작품이다.

주인공 '데니스'는 뛰어난 가창력과 연기 실력를 갖춘 여배우만이 소화해 수 있는 역할인 터라 캐스팅에 관심이 집중돼 왔다. 이번 공연에서는 바다와 함께 '맨 오브 라만차' '지킬 앤 하이드'에서 발군의 실력을 발휘한 김선영과 '해어화'에 출연 중인 정선아가 번갈아 무대에 선다.

그룹 '신화'의 앤디는 뮤지컬 무대 신고식을 갖는다. 9월부터 공연을 시작하는 '뮤직 인 마이 하트-시즌 3'에서 꽃미남 배우 장재혁 역을 맡은 앤디는 팀 내에서 에릭과 함께 랩을 맡고 있어 공식적인 무대에서 노래를 부르는 것은 이번 뮤지컬이 처음이다.

'노래 잘 하는 가수'로 꼽히는 가수 신효범 역시 오는 11월 개막하는 체코 뮤지컬 '햄릿'에서 햄릿 어머니를 맡을 예정이다.

종영한 작품에서도 가수들의 활약은 두드러졌다. 드라마 '오달자의 봄' '옥탑방 고양이' 등을 통해 연기를 선보여온 가수 이현우는 영화를 원작으로 한 뮤지컬 '싱글즈'에서 영화배우 김주혁이 맡았던 증권맨 박수헌 역을 열연했다.

또 5인조 크리스찬 보이 밴드의 이야기를 그린 '알타보이스'에는 이지훈과 김태우가 출연했으며 유진은 '댄서의 순정'에서 공연했다.

그밖에 '지저스 크라이스트 슈퍼스타'는 김종서, 윤도현, 강산에, 김동욱 등이 거쳐갔으며 신성우는 '드라큐라'에서 주인공을 맡은 바 있다.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SBS '날아오르다'로 첫 여주인공 왕 빛 나

"남자 2명에게 사랑받다니…기분 날아올라요"

"그동안 늘 누군가를 바라보며 짝사랑하는 역이었는데 이번에는 두 명의 남자로부터 사랑을 받는 역이에요. '옳다구나' 싶어 바로 한다고 했죠(웃음)."

탤런트 왕빛나(25)가 24일 첫방송을 시작한 SBS 새 금요드라마 '날아오르다'를 통해 데뷔 6년 만에 변신했다. 이기적이고 깔끔하며 얌체 같은 캐릭터를 주로 연기해온 그가 이번에는 어려운 상황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고 꿋꿋하게 살아가는 '캔디 형' 여성을 연기하는 것.

'날아오르다'는 결혼하자마자 교통사고로 식물인간이 된 남편을 7년째 병수발하며 아들을 키우는 종갓집 며느리 이진희가 입양아 출신 청년 CEO 제임스 오닐과 우여곡절 끝에 사랑을 키워가는 로맨틱 드라마. 제임스 오닐은 김남진이 연기한다.

1월 결혼한 '새댁' 왕빛나는 "유부녀 역은 데뷔하고 처음인데 마침 결혼을 해서 다행이라고 생각한다. 사랑받는 역도 처음이지만 그보다 더 의미 있는 것은 여주인공을 꿰찬 것. 그동안 주연급이긴 했지만 오롯이 여주인공으로 캐스팅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처음에는 좀 불안하기도 하고 걱정도 됐지만 드라마가 주인공 혼자 끌어가는 것도 아니고 다 같이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니까 불안감이 사라졌어요. 지금은 행복하고 즐겁게 연기하고 있습니다. 다른 말보다 이 드라마에서 제 연기를 보며 '쟤가 왕빛나야?"라는 반응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연기자로서는 행복하지만 새댁 왕빛나는 신랑을 챙겨주지 못하는 점이 못내 아쉬운 듯하다.

"6개월이 지났는데 주부로서 해야할 일을 잘 못해서 아직도 사실은 유부녀라는 게 잘 실감이 안 나요(웃음)."

/연합뉴스

10 BOX OFFICE

영 화

(단위:명)

순위	제목	전국관객	전국누계
1	디 워	58만 846	690만 2천34
2	화려한 휴가	41만 6천747	560만 9천5
3	만남의 광장	30만 9천768	60만 9천807
4	지금 사랑하는 사람과 살고 있습니까?	22만 7천538	43만 5천770
5	스타더스트	18만 388	315만 243
6	리턴	7만2천13	53만 9천493
7	조디악	5만5천 367	10만7천619
8	미스터 빈의 홀리데이	5만 359	9만1천977
9	판타스틱 4 : 실버서퍼의 위협	4만3천 930	55만3천889
10	서핑업	4만3천403	24만3천 525

〈자료제공:영화진흥위원회〉

TV

(단위:%)

순위	제 목	방송국	시청률
1	하늘만큼 땅만큼	KBS1	33.3
2	대조영	KBS1	29.9
3	커피 프린스 1호점	MBC	28.7
4	무한도전	MBC	23.5
5	며느리 전성시대	KBS2	20.2
6	KBS뉴스9	KBS1	19.1
7	상상플러스	KBS2	17.4
8	개와 늑대의 시간	MBC	17.4
9	황금어장	MBC	16.8
10	강남엄마 따라잡기	SBS	16.4

〈자료제공:TNS리서치〉

비디오

순위	제 목	장 르
1	300	액션
2	동갑내기 과외하기 레슨2	코미디
3	더블타겟	액션
4	이장과군수	코미디
5	택시 4	액션
6	극락도 살인사건	스릴러
7	디센트(2005)	스릴러
8	밀양(2007)	드라마
9	뜨거운 녀석들	액션
10	리핑 10개의 재앙	공포

〈자료제공:엑스트라〉

가 요

순위	제 목	가 수
1	사랑앓이	F.T 아일랜드
2	소 프레시	MC몽
3	나 이젠	V.O.S
4	눈물로	제이
5	오아시스	브라운아이드걸스
6	물끄러미	지아
7	사랑의 인사	씨야
8	미련한 가슴아	엠씨더맥스의 이수
9	사랑이 그래요	오종혁
10	마이 엔젤	플라이투더스카이

〈자료제공:멜론〉

光州日報
광주시 동구 금남로 2가 20-2(501-711)
회장 許宰晧
사장 발행·편집·인쇄인 金禛榮
논설실장 金東永 편집국장 申港樂
대표전화 2200-500·222-8111 (구독신청·배달안내)
홈페이지 www.kwangju.co.kr
편집국안내
대표팩스 222-4918 총무부 2200-511 〈팩스 222-8005〉
편집부 2200-629
정치부 2200-616 광고국 2200-521 〈팩스 227-9500〉
경제부 2200-617
사회1부 2200-618 디자인 2200-536 〈팩스 222-4267〉 사업2부 2200-552
사회2부 2200-619 문화사업국 2200-541 〈팩스 227-0118〉 〈팩스 222-0195〉
문화생활부 2200-626 판매부 2200-551
여론매체부 2200-628 〈팩스 227-9500〉
체육팀 2200-627 서울지사 02-773-9331
사진부 2200-690 〈팩스 02-773-9335〉
조사부 2200-570
구독료 월 8.000원 1부 400원
1952년 4월 20일 創社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가 1(일간)
본지는 신문윤리 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